

2015 한국건축산업대전

10th Anniversary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건축전문전시회 '2015 한국건축산업대전(이하 KAFF2015)'이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나흘간 25,000여명이 관람하는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우수건축자재 및 건설장비, IT 등 93개 업체 240부스가 참가한 이번 전시회엔 기존업체 뿐만 아니라 한국신에츠실리콘 등 41개 업체가 새롭게 참가하여 전시를 더욱 풍부하게 했다. 아울러 최근 건축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과 제로에너지, 안전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Green&Safety'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전시뿐만 아니라 동시 행사로 녹색건축한마당이 열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개막식에는 주최기관장인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 회장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김대익 AURI 소장,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과 미디어 파트너인 매경미디어그룹에 조현재 MBN 대표 등 정부 및 학계, 건축계, 언론사 인사들이 참가했다.

이외에도 전시기간 동안 건축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건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관람객을 위하여 신진건축사들이 건축상담을 진행하여 눈길을 끌었다. 35명의 신진건축사들이 참가하여 젊고 유능한 신진건축사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전시하고 100여건의 건축상담도 진행되었다. 전시에 참가한 업체들의 반응도 좋았다. 올해 처음으로 KAFF에 참여했다는 조적 및 석축관련 자재업체인 (주)민예 관계자는 "연계된 업체간의 상호 원원의 전략적 협의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며 "내년도 전시회에도 지금보다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참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



2



3



4

1. 개막식 커팅식
2. 녹색건축한마당 전경
3. 대한건축사협회 청년위원회 주관, 365 신진건축사가 말하는 삶에 맞는 집
4. 전시장을 둘러보는 내외빈들
5. 한국건축산업대전 대상 수상자들과 조충기 회장



5